

서울대, 성장하는 학생 찾는다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202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은 단순한 입시 안내서를 넘어 변화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문서에 가깝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확대, 내신 5등급제 도입 등 대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울대는 '학교 교육 중심의 정성평가'라는 본질적 가치를 더욱 강조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서울대는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가진 학생보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학문적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스펙 경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서울대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화려한 활동의 개수가 아니라 활동의 맥락과 성장 과정이다.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보다 왜 관심을 가졌고 어떤 고민과 탐구를 통해 발전했는지 중요하다. 실제로 안내서에서는 학생을 하나의 점수나 등급으로 환원하지 않고 학교생활 전반 속 변화와 성장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철학이 드러난다.

2027학년도 전형은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등으로 운영된다. 지역균형전형은 교육환경 속에서 꾸준히 성장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며, 일반전형은 모집단위와 관련된 학업 역량과 탐구 능력을 심층적으로 본다. 기회균형전형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의지를 잃지 않고 성장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전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백라 중심 평가'다. 서울대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성장했는지를 본다.

특히 학생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학업역량 평가 방식이다. 서울대는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수강자 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선택 과목의 난이도, 성적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어려운 과목이나 소인수 과목에 도전한 경험은 비록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으로의 대입에서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는 전략이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태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다. 서울대는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발표 수업에 대해 자료를 스스로 탐색하거나 실험 과정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경

험, 독서와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태도 등이 모두 의미 있는 평가 자료가 된다. 학업 외 소양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는 리더십을 단순히 '임원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협력하며 갈등을 조율했던 경험,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 과정,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 태도 등을 중요하게 본다. 즉, 보여주기식 리더십보다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핵심이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은 세특 문구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전공과 역지로 연결된 활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대는 활동 간의 연결성과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단기간에 만들어진 스펙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기록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꾸준히 탐구하며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2027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은 단순하다. 결과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학교 안에서 어떻게 배우고, 고민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학생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지금도 스스로 질문하고 실패 속에서도 성장할 줄 아는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성과급 논란에 가려진 상생의 책임



기 지 수첩
유 혜 온
(산업부)

최근 산업계를 달구고 있는 성과급 논란이 기업의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화두로 번지고 있다. "일한 만큼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달라"는 노동계의 목소리와 "미래 투자와 글로벌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비명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과업 개시 90분 전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자사주 지급 확대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 성과급'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존 초과이익성 과급(OPI)에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추가 하면서 성과와 이익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한 층 강화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성과급 요구도 더 구체적이고 과감해지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와 3000만 원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LG유플러스·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도 영업이익 15%를 요구했으며, 한화오션 노조도 성과급 지급 방식 개선을 요구안에 담을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특히 크다.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중동 전쟁 여파와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7% 줄어든 234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본교섭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선업계도 사정은 복잡하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과 하청이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선업처럼 수주부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

는 장기 사이클 산업에서 단기 실적 기준으로 성과를 고정 배분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중국과의 수주 경쟁, 친환경 선박 전환,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 대규모 미래 투자 부담도 적지 않다.

노동계의 요구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현장의 불만과 보상에 대한 갈증이 담겨 있다. 반대로 기업들 역시 당장의 이익을 쪼개 쓰기엔 글로벌 생존 게임의 벼이 너무나 높다.

성과급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극단화와 이기주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힘 있는 대기업 노조가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앞세워 '내 몫 챙기기'에만 몰두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 경제로 전가될 수 있다.

지금 산업계에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가치를 증명할 연대 의식과 성장의 과실을 사회로 넓히는 상생의 책임감이다. 힘의 논리 끝에 남는 것은 파국뿐이라는 점을 노사 모두 되새겨야 한다.

/dhalehal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 (음 4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계획을 꼼꼼히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년생** 수렁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72년생**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세요. **84년생** 스트레스는 받는 즉시 바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 49년생**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여행은 되도록 떠나지 마세요. **73년생** 지금 시기가 아직 좋지 않습니다. **85년생** 큰 금전거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50년생** 자신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때입니다. **62년생** 어려운 일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86년생** 주위의 유혹을 잘 이겨야 가능합니다.
-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머지않아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손리에 차분히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성급히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 52년생** 시야를 더 넓게 가지세요. **64년생**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도록 하세요. **76년생** 반드시 바라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88년생** 말과 행동의 구별수를 조심 하세요.
- 53년생** 좋은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65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모든것에서 거침없이 승승장구합니다.
- 54년생** 뜻대로 자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66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습니다. **78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 합니다. **90년생** 만인이 그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됩니다.
- 55년생** 여태껏 차질을 느낀 보람이 크게 있겠습니다. **67년생** 사업이 점차 변창하게 됩니다. **79년생** 노력을 닦아온 결실이 마침내 맺어질 때입니다. **91년생** 배우는데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 56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68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80년생** 수양을 꾸준히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92년생** 조금씩 말고 차분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 57년생**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됩니다. **69년생** 하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81년생** 목표가 높아 올라가는데 다소 힘이듭니다. **93년생** 길흉화복이 함께합니다.
- 58년생**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할 것입니다. **70년생**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82년생** 좋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94년생** 여행 도중 풍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 59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71년생**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83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크게 즐거워집니다. **95년생** 면접운이 매우 좋게 작용합니다.



김상회의四季 복권 로망

복권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복권의 유래가 궁금해진다. 자료를 찾아보니 원래 로또는 운명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로토'(Lotto)이며, 여기에서 파생되어 복권을 의미하는 영어 '로터리'(Lottery)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가끔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듯 사상 최대금액의 복권 당첨자에 대하여 해외토크 뉴스에 나서 전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데, 세계 경제 1위를 구가하는 미국의 로또에 해당하는 것은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복권은 21세 미만은 구입 및 당첨금 수령이 불가하다는데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은 복권 구매가 금지되어 있다. 유럽 전역에서는 '유로밀리언'이 제일 유명하다. 당첨자 중에 인상적인 것은, 2012년에 미국 미주리 주의 작은 마을에서 사는 마이크 힐이라는 남성이 파워볼에 당첨돼 한화로 치면 약 3400억원을 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곧 그가 마을을 떠날 거라는 예상을 했다.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들의 당첨 사실을 숨기고 멀리 이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엔 당첨금의 절반을 지역 공동체에 기부해 마을 소방서를 신축했다. 과거 그의 아버지가 두 번이나 쓰러졌을 때 지역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보답으로 소방서 신축을 했고 부부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장학금, 마을에 놀이터와 하수처리장을 짓는 등 공익적 환원을 했다고 한다. 당첨금액이 크기는 했지만, 공짜로 생긴 일확천금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게 쓴다면 분명 공덕을 짓는 일이다. 복권 당첨은 누구나의 로망이다 보니 한국 복권에 비해 당첨금액이 차원이 다른 미국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구매대행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불법이라고 한다. 푼돈이라도 낭비하지 않기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4		6	7					2	
	3	9		5	6			4	
			1					9	3
	1					3		4	
	7							5	
5	3							6	
9	8				7				
	4		6	2		7	1		
7					1	6			5

문제풀이:

6	3					9		7	5
9			7						4
		1		9	5	8			
1	6							4	
		7						6	
	4						9		1
		3	9	4		5			
7					6				3
3	5	6					9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9	1	6	7	8	2	2
8	1	2	6	2	9	9	7	8
9	2	7	2	8	9	1	8	6
1	9	8	7	2	2	8	6	9
6	9	2	8	9	8	7	2	1
7	2	8	9	8	6	2	1	9
8	6	9	2	7	1	2	9	8
2	7	1	9	9	8	6	8	2
2	8	6	8	1	2	9	9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